

1897년 한국에 소개된 위배사나 는 동남아 지역의 불교 수행 전통 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위해, 초기 불 교를 공부하기 위해 스리랑카로, 미얀마로 떠났고, 그들이 귀국한 90년대 이후 학술적 논의의 정도 만물었다. 하지만 남방 상좌불교의 수행 전통이나 신앙 형태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분적이다. 스리랑 카에서 초기불교를 공부하고 온 마 성 스님(마산 가이사 주지·사진) 은 '실지어 위배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사상적 배경은 모 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상좌-대승불교 본질적 차이 지역성 아닌 개인적 성향에

마성스님, 신앙형태·사상적 배경 등 고찰



상좌 불교와 대승불교의 특성 비교

상좌 불교	대승 불교
지혜를 통한 '이해' 강조	이해보다 '믿음'이 우선
분석적 방법→'점진적' 수행	직관적 방법→'급진적' 수행
'번뇌' 측면에서 인간 이해	'보리'의 측면에서 인간 이해
의례를 중요시 안 함	의례를 중요시 함

상좌불교=이해 중시...개인·'지혜의 도'에 초점
대승불교=믿음 강조...대중·'신앙의 도'에 비중

개인의 '도'와 '지혜의 도'에 초점을 맞춘 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한 다. 하지만 대승불교는 '대중의 도'와 '신 앙의 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

추구함에 있어 분석적 방법 을 택하지만 선불교의 전통 이 강한 대승불교는 직관적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입장 도 상좌불교는 번뇌의 측면 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경향 이 강한 반면 대승불교는 보 리지혜의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려 한다. 이상에 토대 를 둔 상좌불교가 의례를 중 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 비해 대승불교는 신앙 자체가 의 례할 정도로 의례를 중요 시한다.

그러나 마성 스님은 "상좌불교와 대승 불교는 지리적 구분이 아니며 지역적 구분 은 이제 중요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상좌불교도 안에서 '대중의 도'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대승불교도 중에서도 '개인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예컨대 선방에서 수행만 하는 스님들의 경우, 말로는 대승 불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좌불교도 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며 "상좌와 대승의 본질적 차이는 지역성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설명했다.

마성 스님은 "초기불교의 전통을 계승 한 상좌불교와 대승불교는 그 사상적 차 이가 다르기 때문에 교화체계나 수행 체 계, 신앙 형태가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 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 였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①

섬세한 장식의 부활

고려불화는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의 극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장식성 은 11세기보다는 12세기, 12세기보다 는 13세기, 13세기보다는 14세기가 더 극성하였다. 이 현상만 두고 보면 고려 불화는 궁극적으로 섬세한 장식의 향 해 치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4 세기에 절정을 이룬 장식성은 15세기, 즉 조선에 들어와서는 한풀 꺾여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18세 기에 다시 고려불화를 능가할 전두이 장식성이 되살아난 것이다. 특히 의겸 (義謙)이 제작한 불화들에서 섬세한 장

의겸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보니 양겸 (兩謙)이 이 시기 화단을 주도하였던 것 이다. 그가 굿어로서 본격적인 작품활동 을 시작한 곳은 1719년 고성 운흥사 이다. 이후 송광사, 선암사, 홍곡사, 실 상사, 천은사 등 주로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신강(信剛), 채 인(彩仁), 환적(陔, 색인(色敏) 등 수 십 명의 화승을 배출하여 이른바 의겸 파(義謙派) 불림 만큼 한국불교회화 사에서 뛰어난 위상을 보였다. 의겸이 1729년에 제작한 해인사 영 산회상도는 그의 대표작으로 좁기에 손색이 없다. 석가불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권속들을 뿔뿔하게 배치하여 이미 구도 에서부터 장식성을 부여하였다. 전반적으로 녹색조의 바탕에 주색이 생기를 띠고 있고 금색이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불화는 10가 지도 안 되는 색을 사용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채 롭게 보인다. 그 비밀은 금색 바탕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금선 무늬를 넣느냐에 따라 색감은 달라진다. 색채는 10 가지 이내라도 그 위에 들어 가는 금선의 무늬에 따라 채 감하는 색채의 수는 대폭 늘 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선의 무늬로 인하여 면이 딱딱하지 않고 색채 또한 고



해인사 영산회상도(1729년, 보물 1273호). 18세기 전반에 성행한 장식적인 불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18세기 들어 고려불화 장식 능가할 정도 의겸의 '해인사 영산회상도'가 대표적

식성이 다시 등장하였다. 왜 18세기에 와서 장식성이 부활한 것일까? 그 계기 는 17세기에 불교를 증흥하려는 강렬 한 의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크게 그리 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17세기 불화의 활력이 있었기에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디테일에 침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18세기 전반에 풍미한 장식 성은 이 시기 불교계의 중요한 상황 을 짐작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겸은 '연화'화가인가? 18세기 전반 에 일반 회화에서는 김재(謙齋) 정선(亭 詵)이 대표적인 화가라면, 불화에서는 정되지 않고 움직이게 된다. 즉 색채와 색채가 서로 진동하기 때문에 시각적 으로 풍부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것 이 이 그림에 장식성과 동시에 활기를 부여하는 비결인 것이다. 그런데 이 불 화의 화기에는 의겸을 호선(毫仙)이라 소개하고 있다. 굳이 호선의 뜻을 새기 자면 '붓 선선'쯤 되는데, 그의 명성이 이미 당대에 세상에 떨쳤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신선의 경지에서 노닐었 "난'의겸은 18세기에 '유물'계 '풍류'계 '상 식성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정되지 않고 움직이게 된다. 즉 색채와 색채가 서로 진동하기 때문에 시각적 으로 풍부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것 이 이 그림에 장식성과 동시에 활기를 부여하는 비결인 것이다. 그런데 이 불 화의 화기에는 의겸을 호선(毫仙)이라 소개하고 있다. 굳이 호선의 뜻을 새기 자면 '붓 선선'쯤 되는데, 그의 명성이 이미 당대에 세상에 떨쳤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신선의 경지에서 노닐었 "난'의겸은 18세기에 '유물'계 '풍류'계 '상 식성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마성 스님의 논문 '상좌불교와 대승불 교의 실천적 특성 비교'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좌불교와 대승불 교의 신앙 형태와 사상적 배경을 종합적으 로 고찰한 거의 최초의 글"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번 겨울에 나올 <석림> 36집에 실릴 예정이다. <석림>은 동국대 석림회 에서 일 년에 한 번씩 펴내는 학술지다. 마성 스님의 논문은 현존하는 동남아사 야의 상좌불교는 엄밀히 말해 부처님 생존 시의 근본불교나 부파불교로 분류되기 이전의 초기불교와는 다른 형태지만 초기불 교 전통의 상당 부분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출발한다. 상좌불교와 대승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 은 이해와 믿음의 문제이다. 상좌불교는



체계불학, 독립적연구 필요

김성철 교수,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김 교수는 이날 "기독교인들이 현대 사 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비판의 식을 가지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 는 이유는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이 현대에 도 계속 활발하게 연구되며 가르쳐지고 있 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비되는 불교학의 한 영역으로 체계불학과 실천불교학이 독 립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행지침 마련할 때 사회활동도 활발

김 교수가 정의한 체계불학이란 '현대의 문헌학적 연구 성과에 토대를 두고 불전의 가르침을 유기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수미 일관한 하나의 신행체제로 구성해 내는 불 교학'이다. 김 교수는 "인문학적 불교 연구의 역사 가 짧은 우리 나라의 경우 정교한 문헌 분

석에 토대를 둔 인문학적 불교 연구는 보 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문학 적 불교학을 통해 성취한 연구성과들을 선 별 취합하여 체계불학을 구성함으로써 불 자들에게 확고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을 제공할 경우 이에 토대를 둔 응용불교 학적 연구와 대사회적 불교활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베트 불교의 <보 리도차레론>을 하나의 모 델로 제시한 김 교수는 깨 달음이란 무엇이고 불교학 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출가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가, 보살도를 지향하는 대 승불교의 '출가'와 '재가'는 "공공연가", 불교 신앙의 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불교학계가 해답을 낼 수 있 을 때 사회적 실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성보' 4호 발간

거창·창녕 불상 보고서 등 담아

"지정과 비지정의 차이는 조사하고 안 하고의 차이이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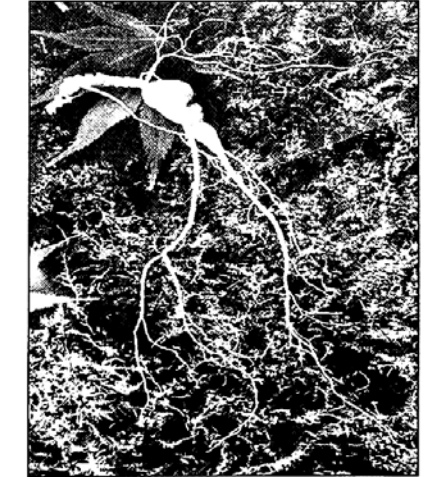
거창 포교당(심우사) 목조아미타불좌상 과 삼장탱화, 창녕 포교당 목조석가모니불 좌상 등 올해 경상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 된 성보 3점 역시 조계종 문화부의 조사 역 분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대표적 경우다. 특히 거창 포교당의 목조아미타불좌상은 1640년 조성이라는 절대 연대와 불만 사 할, 조성에 참여한 화원(畫員)을 밝힐 수 있는 조성기가 함께 발견돼 17세기 중반 경상도 지역의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 고 조사를 맡은 김창균 문화재청 문화재전 문위원은 설명했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성보>(연간 제4호)는 '거창·창녕 포교당의 불상과 불화' 조사 보고서와 '전남 고흥사 경가사자선불상' 복원발견 보고서, '고교서'를 담았다.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 토 론회(2001년 8월)와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2002년 3월)의 발표문과 토론자료를 묶어 특집으로 꾸몄다.

元·氣·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 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 지 中藥 120가 지 下藥 125가 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 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 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 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 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 록되어 있다.

심마당으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 증, 나방,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 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전장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사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 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뇌를 조금만 먹어도 우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존경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지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계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 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정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敬禮드려드리고자 하니 부담없이 到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당 체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 정품(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근행"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근행만행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너 리드:반사이론) (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미질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 월한 예방의학과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실 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상위일 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총합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 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요소의 세포로 건너 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

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 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산화합물)이 유류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 거나 자극을 가하면 순환기능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 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건강신발 근행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타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되었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경기능개선

구입문의 031)742-0296, 742-0297 근행대표 박동진 합장